

인 사 말

자비나눔힐링콘서트 「더 나눔」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입니다.

경제활동, 자녀양육, 부모봉양 등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놓여진 수많은 짐들이 여전하건만,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주위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과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불교는 어떤 역할에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혼탁해지고 고통에 빠질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화합과 상생의 나눔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세상에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듯이, 오늘 힐링콘서트를 통해 지난 한해 온갖 세상사로 힘들어 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놓고 꽃이 피기를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콘서트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걱정을 덜고 희망과 활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서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향기로운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8년(2014년) 11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